양양소식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22. 12

Vol. 331

CONTENTS

04 기획특집 플라이강원 취항 3주년	08 마을가는 길 현남면 견불리	12 양양군청 IN & 人 재난안전과

법수치 산천어

방순미

약력
방순미(方順美)
– 충남 당진 출생
– 2010년 『심상』으로 등단
– 시집 『매화꽃 펴야 오겠다』 『가슴으로 사는 나무』
– 산문집 『백두대간, 네가 있어 황홀하다』
– 한국시인협회 외 다수 활동

계곡 한 모퉁이를 골라
가만히 앉은 낚시꾼,

무얼 할까 싶어
가던 길 멈추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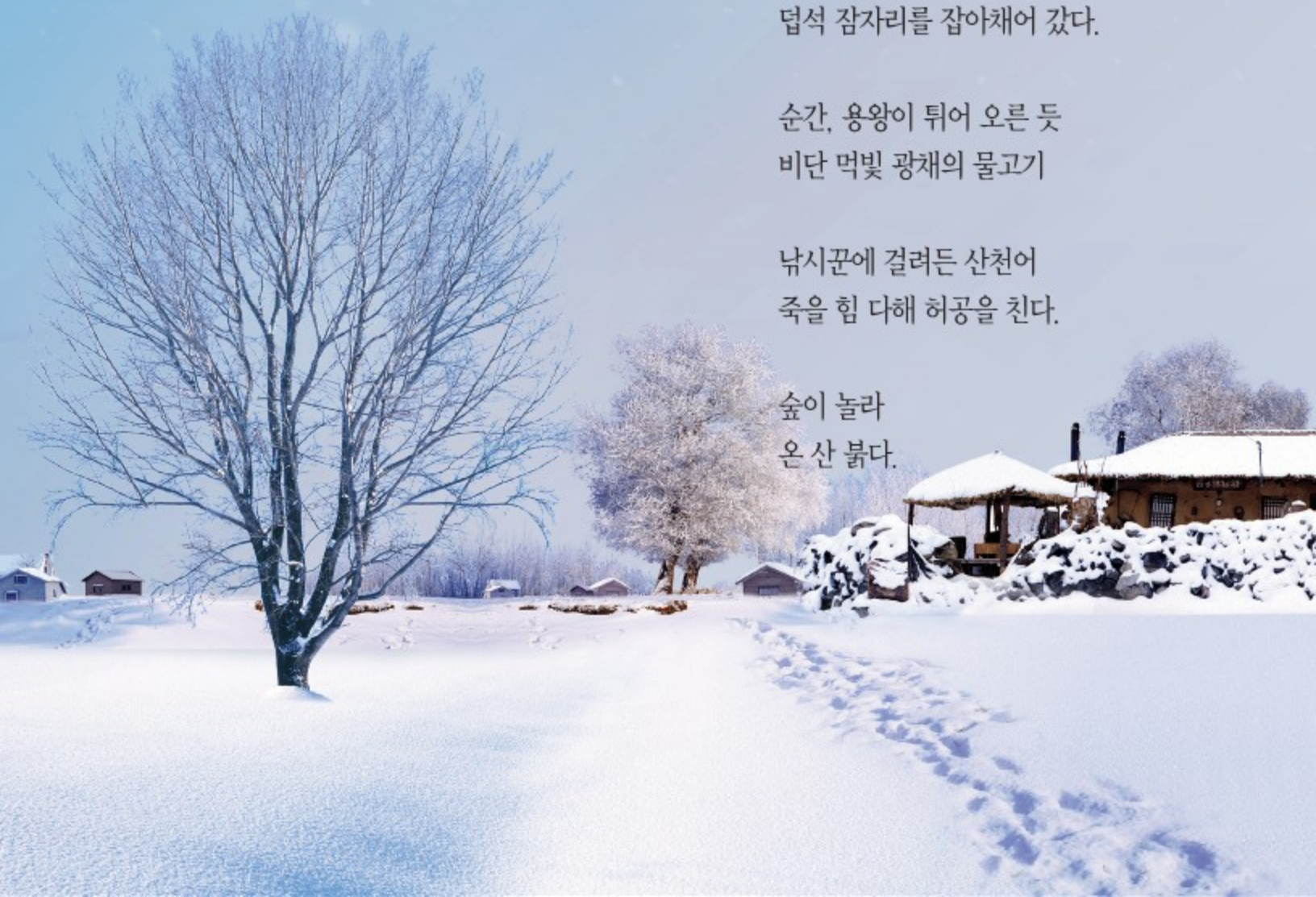
낚시에 꿰인 잠자리 미끼
살아있는 듯 나풀댄다.

무언가 번개같이 뛰어올라
덥석 잠자리를 잡아채어 갔다.

순간, 용왕이 튀어 오른 듯
비단 먹빛 광채의 물고기

낚시꾼에 걸려든 산천어
죽을 힘 다해 허공을 친다.

숲이 놀라
온 산 붉다.



양양소식

Vol. 331

CONTENTS

COVER STORY

희망양양

4 **기획특집_** 플라이강원 취항 3주년

8 **마을가는 길_** 현남면 견불리

12 **양양군청 IN & 人_** 재난안전과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설악해수욕장

의기양양

16 **의정소식_**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운영

18 **향토사 이야기_** 교통의 요충지 양양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24 **건강 알리미_** 항생제 내성, 함께 극복해요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28 **공익광고_**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양양소식 · 331호

|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플라이강원 취항 3주년 긴 활주로를 달려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취항 3주년을 맞았다. 항공업계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항공사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여정은 더욱 험난했다. 그러나 많은 위기와 우려 속에서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양양국제공항을 꿋꿋이 지켜왔다.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지난 성과와 전망을 들여다본다.

베트남 하노이 첫 취항, 귀국 편 입향식

누적 탑승객 100만 명 돌파 눈앞에

지난 11월 22일 플라이강원 취항 3주년 기념식이 양양 본사에서 열렸다. 2019년 11월 22일 양양~제주노선 첫 취항을 시작으로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신생 항공사가 자리를 잡기까지 보통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핵심부서만 제외하고 임직원들의 순환 무급휴직 등 긴축 경영으로 버텨낸 시간이었다. 고통 분담 결과, 올 6월부터 전 직원이 모두 정상 복귀했고 올 초 신입직원도 대거 채용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양양에서 제주, 여수를 오가는 국내선 총 2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특히 제주노선은 하루 3~4편 운항에 승객 탑승률도 90%가 넘어 양양국제공항 주차장은 늘 붐빈다. 국제선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국제선이 2년 3개월 만인 지난 6월 필리핀 클락 노선을 시작으로 해외 하늘길이 열렸다.

지난 10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일본 나리타(도쿄) 노선이 속속 운항에 들어갔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정기 노선을 취항하는 것은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 이후 최초다. 대만 타이베이 노선도 12월 7일 운항 재개에 들어가 국제선 입국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꾸준한 노선확보로 올 한해 여객 수요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총 3,000여 편 운항에 4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첫 취항 이후 누적 탑승객 수는 지난 10월 28일 기준 60만 명을 돌파했고, 올 연말 70만 명, 내년 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 사업 추진, 양양을 환동해 물류거점으로!

플라이강원은 수익 다각화를 위해 보다 공격적이고,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항공화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올 초 항공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지난 3월 항공화물 운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플라이강원 카고(Cargo)를 설립했다. 항공화물운송 사업은 코로나 여파에도 실적이 좋은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양양국제공항에 연간 20만 톤 규모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을 건립하고 최첨단 물류 설비 도입을 통해 수출입 보세창고, 신선식품을 처리할 수 있는 특수창고, 화물대리점 사무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화물운송 사업은 플라이강원의 수익 창출은 물론 양양국제공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19개 업체로부터 월 1만 톤의 물동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주요 물류단지의 50%가 몰려있는 경기 남부권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과 비교해서 양양국제공항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항공화물터미널과 공항 주변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면 양양국제공항은 국제항공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도내 수출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효과로 인한 인구 유입, 양양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이강원 카고 포스터

현재 3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인 플라이강원은 올 연말까지 승객 260명과 화물 21톤을 실을 수 있는 중대형 항공기 A330-200 기종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장거리 노선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026년까지 화물전용기 3대를 포함해 총 12대의 항공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적 탑승객 50만명 기념 사진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도 대표 항공사

일본 노선을 제외한 동남아 노선은 인바운드 예약률이 90%를 넘고 있다. 그만큼 외래 관광객이 강원도 관광을 목적으로 국제선 탑승이 이뤄지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항공과 관광 상품을 결합한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 항공사로 세계 최초의 인바운드 항공사다.

내국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비행기를 띄우기보다는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 외국의 큰 도시 노선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0년 배분받은 중국 베이징과 장춘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국 최대 경제중심 도시인 상하이와 청두까지 배분받으면서 중국 4개 주요 도시 하늘길을 확보했다.

중국 내륙의 중심도시인 청두는 인구 1억 2천 만의 배후 수요를 갖고 있어 동해안 관광을 기대하는 중국인을 강원도로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래 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입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플라이강원은 단지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운송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과 서비스는 기본,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기본지식과 관광 정보도 전달한다. 이를 위해 플라이강원은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관광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관광 재원을 알리기 위해 민간 관광 홍보대사 역할도 하는 셈이다.

강원FC와의 업무협약, 최근 프로농구 원주DB와의 스폰서십 체결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양양지역 내 행사나 축제 홍보 등 지역과 상생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이 취항한 지 3년, 플라이강원의 비전과 목표는 확고하다. 앞으로도 강원도 대표 항공사로서 양양에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길고 긴 활주로를 달려 온 플라이강원의 힘찬 비행을 기대한다.

〈**글 · 사진** : 편집부〉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村村

현남면 견불리

현남면 한가운데 자리한 중간마을
마을에 전해지는 천년 사찰의 전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들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라는 말은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처럼 흔한 예삿일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고 보면 무탈하고 평범한 일상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게 된다.

현남면 견불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다 할 특색이 없는, 예사 농촌 마을이다. 초고령화 마을이고, 인구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상다반사의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마을을 지켜가고 있다.

견불리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남애초등학교에서 더앤리조트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차로 2km 남짓 달리면,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 '견불리'에 닿는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산이 점점 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데, 지도를 보니 마을이 산세에 폭 안긴 듯하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세상과 거의 단절된 오지마을이 아니었을까? 견불리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 없이 베일에 싸여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현재 거주하는 조씨선조모인(趙氏先祖某人)의 대과급제 당시 부처님이 현몽되어 등과하였다는 전설로 견불리라 칭한다. 지형이 '노승예불'의 형국이라 하여 견불이 변하여 존불이라 하며 또는 개매 위쪽이 되므로 웃개매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견불리라 하였다.

– 출처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김경욱 이장은 마을의 유래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 결과 1,500년 전에 이 마을에 '존불암'이라는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 마을이 '천주교 박해'라는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견불리에 '옹기점골', '사기점골', '독점골', '가지막골' 등의 지명이 남아있는 것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골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옹기를 구워 팔면서 생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도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었지만,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가정으로만 남아있다.

한양 조씨와 경주 김씨의 집성촌으로 알려진 견불리는 1916년에 행정 개편이 되기 전에는 '개매'라는 이름으로 포매리와 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는 가구 수가 100여 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38가구의 80여 명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게다가 주민 중 58%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초고령화 마을이 되었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쌀을 비롯해 들깨, 감자 등을 생산하고 있다.

견불리 사람들이 사는 법

견불리는 현남면의 중간 마을이라고는 하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막다른 구석에 자리한 오지 마을 같은 인상을 준다. 몇 킬로미터만 나가면 7번 국도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남애항이 지척에 있어도 이 마을의 시간은 분주한 세상과는 별개로 천천히 조용하게 흐르는 느낌이다.

지금도 마을 안에 문화 · 편의시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동차가 다니지 않았던 옛 시절에도 마을 사람들은 볼일을 보기 위해 가까운 주문진까지 가야 했다고 한다. 땔감을 팔기 위해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일도 예사였다. 마을의 가시적인 발전은 더뎌 보일지언정 주민들은 누구보다 시대의 변화를 일찍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만해도 양양군민이 모인 곳에서 견불리 사람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1970~80년대 초에 남들이 걸어서 논일 보러 갈 때 우리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농사를 지으러 다녔어요. 다른 마을에서 자전거를 탈 때, 우리 마을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고요. 좋게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했다고 할까요? (웃음)

– 김경욱 이장」

마을에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른 마을들처럼 활발하게 마을 사업을 펼칠 여건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단합력만큼은 어떤 마을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

인구 감소와 주민 고령화를 겪는 작은 시골 마을들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견불리 역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김경욱 이장은 서로 화합하며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주민들이 있기에 작은 마을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어려움을 담담히 품어내는 삶

견불리에는 보호수로 지정되었던 굴참나무가 있었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수려해서 1980년 초에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매년 정월대보름날 성황제를 올리던 신성한 나무이자,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버팀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3월, 갑작스러운 폭설에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성황목인 굴참나무가 부러져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게다가 훼손 정도가 심해 보호수에서도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서운함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굴참나무는 여전히 성황당 옆을 지키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부러졌을지언정 여전히 나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태풍 루사와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와 매몰 등 피해를 본 견불리 주민들은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을 벌인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마을이 부러진 나무를 그대로 품었듯이, 주민들 역시 어려운 시절을 담담히 품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이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우여곡절의 세월을 건너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무탈함에 감사하게 되는 이 시대에 견불리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일상다반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글 · 사진 : 편집부〉

재난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양양군을 만듭니다

부서 : 재난안전과
규모 : 4팀 15명
업무 : 안전총괄, 재난방재, 재난구호, 비상대책

최근 안타까운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災難)은 태풍 · 홍수 · 지진 등의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화재 · 붕괴 · 폭발 등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사회재난에 속한다.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재난안전과를 소개한다.

365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

재난이라고 하면 보통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사고를 떠올리지만, 최근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비, 바람, 눈이 몰아치는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계곡과 바다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 대형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양양군 역시 여러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재난안전 업무는 2020년, 재난대비와 대응 복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재난안전과로 독립해 신설되었다.

현재 안전총괄팀, 재난방재팀, 재난구호팀, 비상대책팀 등 4개 팀,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380여 가지의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양양군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양에서 발생하는 재난 대응 · 관리 총괄

재난안전과는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양양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평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비롯해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 캠페인 등 안전 전반을 관리하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예 · 경보를 울리고, 재난 피해조사 및 구호, 복구에 대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에 곧장 출동하며, 소방 · 경찰 등과 협업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양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봄, 가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염 · 수해와 물놀이 안전관리, 겨울에는 한파 · 폭설에 대비하는 곳도 재난안전과다. 행사나 축제 등을 앞두고 현장에 미리 찾아가 안전 점검을 하고 안전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CCTV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해 양양군에 설치된 612대의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국 · 도비를 지원받아 500억 규모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00억 규모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여름 발생한 낙산 싱크홀 사고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관리 감독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스마트제설종합센터

군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대책

재난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양양군의 경험은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귀중한 재산이 됐다. 군민들 스스로가 안전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신고하며, 대피 상황에서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여러 차례 산불과 수해를 경험하며 사전에 자율방범대 등을 통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먼저 대피 시키는 등 단계별 매뉴얼을 준비하는 노하우도 생겼다.

또 올 초에는 제설작업 노하우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로 국비 지원을 받은 스마트제설종합센터를 준공해 가동을 시작하였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에 따른 고립예상 지역에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이미 제설 준비를 마쳤다.

윤재복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업무 범위를 뛰어넘어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두 필요한 때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설악해수욕장

1986년

2022년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운영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운영
2022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2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조례안 6건 등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10월 2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박광수)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 · 관리 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남대천 스마트하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사업, 농어촌 폐기물처리 및 증설사업,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낙후된 어항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대천 스마트하천 조성사업과 관

련하여 남대천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악취, 수질 센서의 추가 설치와 분야별로 수집되는 데이터 정보를 군민들이 확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 및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악취, 침출수에 대한 우려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잘 수렴하여 줄 것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식생활 변화 및 관광객 증가로 소각 용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물치항,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어촌 기반시설 신축 및 개선 시 이용자의 편의와 주변 경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목적에 맞는 시설물로 관리되어 물치항과 기사문항이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모든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심도 있는 판단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설계 단계부터 타당성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할 것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하였다.

2022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11월 3일, 양양연탄은행이 주관하는 '20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오세만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봉사를 실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작은 손길들이 모인 사랑의 온기가 잘 전달되어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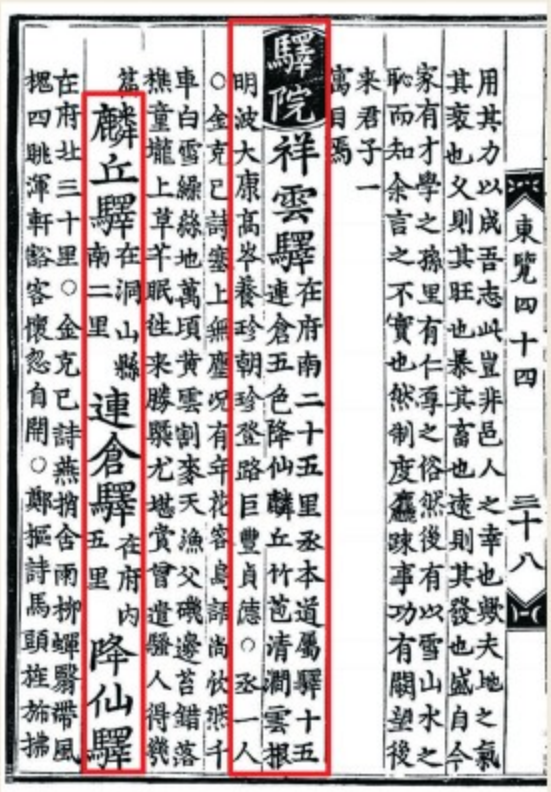
교통의 요충지 양양

양양은 요즘 시대 말로 핫 플레이스(Hot Place :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유명한 장소)이다. 특히 교통적으로는 양양국제공항과 고속도로, 그리고 동해북부선 철도까지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교통 환경을 통하여 조선시대 양양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양양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

조선시대 강원도는 태백산 동쪽에 아홉 고을(통천∽울진)이 있었는데 남북으로는 천 리지만 동서로는 백 리도 못 되는 거리로 그중 양양이 유독 한양과 최단거리이며 동해안의 중심이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시대 강원도 동쪽을 남북으로 양분하여 그 북쪽은 양양(襄陽)의 상운도(祥雲道)가 양양(襄陽)–간성(杆城)–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까지의 15역로(驛路)를 관할하였으며, 남쪽은 삼척(三陟)의 평릉도(平陵道)가 강릉(江陵)–삼척(三陟)–울진(蔚珍)–평해(平海)까지를 관할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권44 양양도호부 역원〉


東覽四十四 三十八
驛院
祥雲驛 在府南二十五里 丞本道屬驛十五 連倉五色降仙麟丘竹苞清澗雲根明波大康高岑養珍朝珍登路巨豐貞德○丞一人
麟丘驛 在洞山縣南二里
連倉驛 在府內五里
降仙驛 在府北三十里

(상운도 관할 15역이 기록되어 있고, 양양의 인구 · 연창 · 강선역이 별도로 표기되어있다)

■ 역참(驛站)의 역할

국가의 행정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 및 외국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그리고 공공 물자의 운송 등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 통신기관으로, 흔히 우역(郵驛), 역관(驛館)이라고도 하였다. 역참은 군사 · 외교면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집권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육상에는 육참(陸站)을 설치하여 주로 역참이라 하였고, 해상이나 강변에는 수참(水站)을 설치하여 수로와 육로를 연결하였으며, 때로는 통행인을 검문하는 관방(關防)의 구실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역참 조직을 계승하면서 30리를 1식(息)이라 하여 약 30리마다 1개 역을 설치하였다. 또한 역촌을 중심으로 지방에는 촌락이 형성되고 교통의 요지가 되어 상업 도시가 발달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역참의 전통 아래 1896년 갑오개혁 이후 현대적인 도로 · 교통 체제가 발달하면서 폐지하게 되었다.

■ 상운도(祥雲道)의 위상

상운도(祥雲道)의 유래는 고려시대의 명주도(溟州道)와 삭방도(朔方道)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역도(驛道)에 속한 역들이 조선 전기 세종 연간에는 대창도(大昌道)에 소속되었다가 세조와 성종을 거치며 상운도로 독립되었다.

『경국대전』(1485년)에 수록된 전국의 역참 조직은 41역도 543속역으로 편성되는데 상운도는 16개의 속역 중 양양의 상운역을 본역(本驛)으로 하였으며, 성종 때까지는 역승(驛丞)이, 중종 이후에는 찰방(察訪 : 종6품)이 파견되어 역무를 맡아보았는데, 『승정원일기』에 인조 9년(1631)에 신적도(申適道) 부터 고종 31년(1894)에 김교명(金敎命)까지 약 160여 명이 상운역 찰방으로 관직을 제수(除授)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전국 40개 역도, 535개 역에 5,380필의 말이 있었는데 전국의 역은 9등급으로 나누어져 1등부터 9등까지 대마(大馬), 중마(中馬), 소마(小馬)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었는데 역의 대부분은 7~9등로(路)에 속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상운도(祥雲道)에 역리(驛吏) 1,202명, 역노(驛奴) 347명, 역비(驛婢) 186명이 배정되어 역무를 담당하였으며, 역마는 93필이 배속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찰방의 업무는 말(馬) 관리뿐만 아니라 유랑인 체포와 죄인 압송, 군사 요충지 방어, 왕이 행차 시 접대, 역사(驛舍) 관리, 도성 축성과 구휼(救恤), 목장 감독, 도첩(度牒) 없는 승려 색출, 환곡(還穀) 담당 등 광범위한 일을 하다 보니 엄청난 인력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운도의 본 역인 상운역(祥雲驛)의 경우 역리 154명, 역노 30명, 역비 29명과 역마 11필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관동지(關東誌)』와 『양양읍지』에도 대마 3필, 복마(卜馬 : 짐을 싣는 말) 8필 등 총 11필의 역마가 배속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7등 로(路)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운역은 세종 때 대창도에 편성되었다가, 세조 8년(1462)에 상운도로 이속(移屬) 되었다. 성종 24년(1493) 미시파령(彌時波嶺) 길을 개척함으로써

조선시대 양양 상운관할 역도 위치도

양양의 오색역을 폐지하고 간성에 원암역(元巖驛)을 설치하였다. 선조 23년(1590)에는 상운역에 있던 "상운관(祥雲館)"을 양양도호부 관아와 인접해 있는 연창역으로 이건(移建) 상운도(祥雲道) 15속역(屬驛)을 관할하였다.

■ 교통과 양양의 미래

위와 같이 조선시대 이래로 양양은 가히 교통의 중심지였다. 하늘길이 열리고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육로로는 고속버스가 연일 수도권을 왕복하고 있다. 이러한 때 1937년 12월 1일부터 운행되던 양양~안변간 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금강산 수학여행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동해북부선의 조기 완공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을 기원한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김진하 양양군수, 상곡 인권상 수상

김진하 양양군수는 11월 1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관 '제22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권익향상과 장애인복지증진 활성화 공로로 '상곡인권상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지체장애인대회'는 지체장애인들의 인권신장과 복지 실현을 구현하는 의지를 담아 매년 개최하는 권위있는 행사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상곡(上谷) 인권상'은 장애인 분야 최고 영예의 상으로 한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한 故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초대회장의 이상과 신념을 기억하며, 장애인 인권운동의 기반 마련과 사회변혁을 위해 매진해 온 장애인 인권 분야 공로자의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강원도 농업인대상에 양양 농업인 2人, 새농촌 도약마을에 북분리 마을 선정 · 수상

2022년 강원도 농업인대상 중 작물경영부문을 수상한 김동길씨는 양양 맛드림벼를 정착하기 위해 고품질벼 채종포 운영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렁이농법과 드문모심기로 병충해에 강한 벼수확 등 품질 강화에 힘써 왔다. 미래농업육성부문을 수상한 김명준씨는 직접 생산한 낙산배를 활용하여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에 성공하며 지역의 미래 농업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북분리 마을은 새농촌 추진 4년차로, 지역개발전문가 평가단의 면밀한 평가를 통해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총 5억원을 지원받아 북분리 솔밭마을캠핑장에 다목적센터를 조성하는 등 마을주민 동아리 및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애항, 해양수산부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 주관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에 양양 남애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클린 국가어항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국가어항 중 5개 어항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항내 방치된 폐어구, 기자재, 난립되어있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어항 특성에 맞는 편익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여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어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69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98억원, 민자 21억원)을 투입하여 어항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양양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포상제 우수운영기관 선정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포상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11월 18일 원주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2022 강원도 청소년포상제 포상식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7세~15세의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자기계발', '신체활동', '봉사활동', '탐험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며,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성장해가는 프로그램이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은 2016년부터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양양로컬푸드 아카데미' 교육 개시

양양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양로컬푸드 아카데미가 10월 26일, 농업기술센터 1층에서 열리는 공통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개시했다.

양양로컬푸드 아카데미는 양양군 로컬푸드를 이끌어갈 참여주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교육생 171명을 모집하였고, 교육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아카데미는 로컬푸드 입문과정의 성격으로 진행되며, 평생교육 개념의 대학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통과정과 3개 학과 6개 전공으로 구성했다.

'2022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성황리에 종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강변과 해변을 모두 달리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가 지난 11월 13일, 많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양양군과 대한육상연맹, G1방송이 주최하고 강원도 육상연맹과 G1방송의 주관으로, 아름다운 양양 남대천과 낙산해변 · 동호해변을 두루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약 3,000명의 참가자가 몰려, 양양에서 처음 치러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 대표 마라톤 대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책 속의 세상

12월 책이야기

안 되면 될 때까지
| 마정하 지음
| 달아실
| 2022. 9월

마정하 산문집. '7전8기 마정하 인생 역전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마정하 본인의 일대기를 그린 자전적 산문집이다. 1947년 당시에는 북한이었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487번지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열여섯 살부터 양양광산에서 일해야 했다. 어머니의 재혼 사건을 계기로 타향살이를 시작한 철암에서는 기차 화물 하역 일을 했다.

그 후 무작정 올라온 서울에서 인쇄공장 일과 청과 상회 점원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가게를 마련했는데 건달들 때문에 결국 포기해야 했고, 다시 철암에서 하역 일을 하다 어머니가 소개한 갓 스무 살의 어린 아내와 결혼하고, 뒤늦게 군에 입대했다. 제대 후 다시 서울로 상경해 삼정 연탄에서 경비 일을 시작해 경비반장까지 하고 나와서, 이번에는 월계동에서 꽃가게를 차리기도 했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은인의 소개로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일을 하게 됐지만 사고 때문에 또 그만두고,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옮겼다. 의정부로 이사해 타지 생활의 마지막으로 아내와 치킨 가게를 하는 사이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장가도 들었다. 그렇게 숨 가빴던 40여 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어느새 오십 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77세의 노인이지만 그는 여전히 상평리 이장으로, 서면 노인회 분회장으로, 서광농협 수석 이사로 고향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 김혜남 지음
| 메이븐
| 2022. 11월

이 책은 2015년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출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1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기념해 펴낸 스페셜 에디션으로 저자가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과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전한다.

또한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등 환자들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책 속 한 구절

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중에서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뽀로로

혜옥이

아바타_물의 길

몬스터 신부_101번째 프로포즈

영웅

장화신은 고양이_끝내주는 모험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건강알리미

질병관리청

•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18.~11.24.) •

항생제 내성, 함께 극복해요

Q1.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항생제의 효과에 저항하여
생존 혹은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항생제를 투여**해도
항생제의 효과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Q2. 항생제 내성, 왜 생길까요?

항생제 내성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항생제의 오·남용입니다.

항생제에 노출에서 살아남은 세균들은 자기복제 과정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형질을 선택하게 되고,
내성 유전자를 다른 세균에게 전달하여 확산시킵니다.

보통 항생제 내성 발생에는 사람, 동물,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Q3. 항생제 내성균, 언제 출현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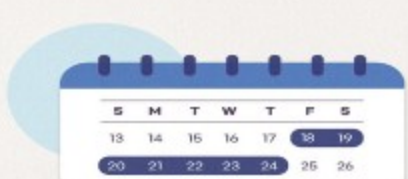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견 이후로도,
새로운 항생제들이 개발되었으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항생제명	도입시기	내성균 발견시기
Penicillin **페니실린**	1941년	1~3년 후
Vancomycin **반코마이신**	1958년	30~44년 후
Methicillin **메티실린**	1960년	당해년도
Imipenem **이미페넴**	1985년	11년 후
Ciprofloxacin **시프로플록사신**	1987년	20년 후
Daptomycin **다토마이신**	2003년	1년 후
Ceftazidime-avibactam **세프타지딤-아비박탐**	2015년	당해년도

* (자료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Q4. 이렇게 사용 가능한 항생제가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처럼,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간단한 세균 감염 질환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포스트 항생제 시대(post antibiotic era)'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11월18일~11월24일**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바른 처방! 올바른 사용! •

올바른 항생제 사용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양양수산	10명	수산물 가공 생산직 (붉은대게)	08:00~17:00 (주5일)	시급9,160원
행복노인복지센터	2명	재가요양보호사	시간협의	시급12,000원
농업회사법인(주) 홈쌤네이쳐	4명	식품가공 생산직	08:30~18:00 (주5일)	월195만원
농업회사법인 양양오색한과(주)	5명	한과포장원	09:00~18:00 (주5일)	시급9,160원
동해막국수	3명	주방보조원	10:00~18:00 (주6일)	월260만원
광운통신(주)	1명	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협의)
인항재가 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09:00~18:00 (주5일)	시급11,800원
행복관리주식회사	4명	소방안전관리자	격일근무	월302만원
	1명	건물보수원 및 영선원	09:00~18:00 (주5일)	월260만원
㈜씨앤에스자산관리 (코랄로호텔)	2명	보안요원	18:00~익일9시 (야간교대)	월220만원
	3명	건물보수원 영선원	3교대근무	월250만원
	3명	수영장 안전요원	07:00~16:00 13:00~22:00	월220~240만원
	7명	미화, 린넨 등	시간협의	월220만원
푸른하늘환경(주)	1명	수질환경기술자 (수질환경기사)	09:00~18:00 (주5일)	연2,400이상 (협의)
	1명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기계,전기)	09:00~18:00 (주5일)	연2,400이상 (협의)
㈜재성정보통신	1명	총무사무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이상 (협의)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양양

- 명칭 : 희망2023나눔캠페인
- 기간 : 2022. 12. 1. ~ 2023. 1. 31. (62일간)
- 슬로건 :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양양
- 기부참여 방법
  - 읍·면사무소 이웃돕기 성금 창구 접수
  - 계좌 입금 : 농협 203-01-448497(강원공동모금회)
  - ARS : 060-700-0577
  - 쉽고 빠른 QR코드 기부

쉽고 빠른 QR코드 기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인 성금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이웃들을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보꾸러미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강화

2022년 11월 1일부터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강화되었습니다.

위반행위 별 개정된 과태료

법조문	법 상한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시행령 부과금액(현행)			시행령 부과금액(개정)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86조 제1항	200 이하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10	20	30	60	100	200
제86조 제1항	200 이하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소지 등)	10	20	30	60	100	20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10	20	30	20	30	5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출입금지	10	30	50	20	30	5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	40	50	20	30	50
제86조 제3항	20 이하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5	10	10	10	10	10
제86조 제3항	20 이하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5	5	5	10	10	10
제86조 제4항	10 이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자연 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10	10	10	5	5	5

금지된 행위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애완동물 출입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양양군

화재경보소리 **들리면**

불이야! **외치고**

즉시 **대피하기**

국민 안전 3원칙

행동할 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th | 2022 강원도립극단 신진연출가 발굴전

잠의사탄이앞에나타나달아나야해갖다놔더강한

카페인

예술감독 **김혁수**

작·연출 **손기주**

출연 **이지연 박두희 김초예 이은정 하우삼 이운호**

15세 이상 관람가

공연일정

양양문화복지회관

22. 12. 14. (수) **19:30**

사전예약무료공연

티켓예매·공연문의

강원도립극단

033-255-0496 www.gwdt.or.kr

주최·주관 (재)강원도립 극단

후원 강원도 양양군

2022년 11월 24일부터

환경부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기존 품목

사용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 해당)

기존 품목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대규모점포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 1회용 우산 비닐

기존 품목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 합성수지(플라스틱)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기존 품목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더 자세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양양군